# 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購讀料 壹枚四錢 壹個月八拾錢 郵稅並九十五錢 三個月貳圓七拾五錢 六個月五圓四十五錢 壹個年拾圓八十錢 地方必先金
廣告料 五號活字 壹行 ... 八拾錢
發行兼編輯人 金東成
印刷人 金炳元
發行所 京城府 朝鮮日報社

## 社說 中國動亂과 赤露와의 關係

一

全中國의 罷業示威日의 前日인 昨二十四日에 廣東市에서 學生、市民、勞働者、軍人等數十萬人의 示威行列團과 英佛의 陸戰隊와 激戰을 演한 事實은 報道가 자못 區區하야 아즉 眞相을 말하기 어렵거니와 諸種의 報道를 綜合하여보면 英佛軍側에서 率先發砲하야 廣東側에 多數한 死傷者가 出하게 되엿다 함은 掩蔽치 못할 事實이다 그런데 同激戰中에 잇서 廣東側에 加擔하엿다는 中國士官學生三千餘人은 露國의 將校에 依하야 指揮되고 잇섯다 한다 이 事實의 如何한 程度의 發展을 遂하며 아울러 如何한 結果를 招致할던지 이것은 아즉 別問으로하거니와 露國의 將校가 中國軍人을 指揮하게 된 事實은 가장 注目되는 事實이라 아니할 수 업다

二

이번 中國動亂과 赤露와의 關係가 如何히 表裡兩面으로 尋常치 아니한 것은 這間諸種의 報道에 依하야 明白한 바이다 最初上海罷業事件勃發當時에 在上海赤露領事가 煽動의 嫌疑로 被任外지를 傳하게 되엿고 事實로 비롯하야 카라한大使의 激勵에 近한 同情演說이 外交團間에 物議거리가 되던 것이며 赤露와 因緣이 깁흔 國民黨이 各地運動의 鞭을 삼고 策動하는 것과 또 嚴厲히 傳하는 바와 如이 同運動費가 赤露에 依하야 調達提供된다는 것이며 其他 露國人과의 非公式의 關係가 種種現露되는 것을 보면 그 眞相을 如斯如斯히 指摘하야 말하기는 困難하다 하드라도 赤露의 活動이 中國의 排外運動에 一大背景이 되야잇다는 것은 容疑할 바이 無한 事實임을 斷言할 바이다 그러면 中國과 赤露와의 密接한 關係는 兩國의 現在에 各其 如何한 必要가 存在하며 將來의 結果는 如何할 것인가

三

元來 露國의 對中政策으로 말하면 自國의 立國精神으로 보아 被壓迫民族인 中國民을 援助하야 列強諸國의 侵略의 魔手에서 救出코자함이 先入見이 되야잇슴은 勿論이어니와 自國의 必要에 應하야 重視하는 것도 事實이다 勿論 露國의 極東政策의 根本精神은 帝政時代즉 日露戰役後의 消極的自衛策에 잇다 함은 일즉 요페氏및 카라한氏에 依하야 言明된 바이니 煩說을 加할 必要는 無한 것이다 中央亞細亞의 弱少民族을 提携하고 또 外蒙古의 獨立을 援助한 것이 또한 그 規範에 버서나지 아니한 것을 보아서도 推斷되는 바이 아닌가 赤露의 對中政策을 誤解하는 者 흔히 그 侵畧의 野慾을 云謂하고 또 今番의 騷擾의 態度는 千八百六十年 英佛의 北京占領의 鐵를 利用하야 海蔘威一帶를 領有하든 故智를 反覆코자함이라고 中傷하는 者 有하나 그것은 모도 以吾心으로 忖他人心의 論法에 不過한 것이다

四

그러데 中國民이 何故로 露國만은 排外의 對象을 삼지아니하는가 함에 對하야 疑訝의 念을 품는 者도 업지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帝露時代에 잇서 廣大한 領土를 割讓하엿슬 뿐 아니라 赤色化한 後에 잇서서도 赤軍을 驅하야 外蒙古의 獨立을 援助하고 昨年五月中露協定에 依하야 外蒙干涉을 承諾하고 오히려 그 實任을 履行치아니하매 洗濟中 東支鐵道問題로 這間葛藤이 暫限한 것은 그 反面에 軍事的意味가 應應한 것等으로 보아 今後에 오히려 露國의 侵畧이 持續될 것 가트면 그 度가 英日에 不下할 것인데 中國民이 도로혀 露國에 好感을 가지고 그의 援助를 밧는 것은 要컨대 前門으로 狐狸를 逐하고 後門으로 豺狼을 迎함의 愚를 取함이라하야 嘲笑와 警告를 與하는 者이니 이것은 中國의 軍閥者流及列國外交團의 共通되는 意見임이 事實이다 그러나 一般中國民衆및 進步한 知識階級은 依然히 赤露에게 好感을 表하게 되는 것은 全혀 赤露의 立國精神을 理解하고 아울러 混沌한 中國의 將來가 오즉 無產階級의 革命에 依하야 收拾될 것이라는 信念이 有力한 指導的原理를 作한 所以입은 多言을 不要할 바인가 한다

五

이번 動亂이 依然히 激憤되야 戰端이 一部에서 開始되게 된 結果 侵略의 根性、橫暴의 心法을 가진 列國間에는 이것을 機會로하야 國際會議開催를 云謂하는 者잇스니 同會議에서 英國이 반드시 率先하야 共同管理의 迷夢을 主張할 것은 明若觀火일 것이다 그러나 中國에서 角逐하는 列國의 關係를 通觀하건데 日本이 自體의 利害를 돌아봄에 非是英國과 類似한 地位에 잇다하나 無端히 中國民의 敵愾心을 挑發치 아니할 것이오 또 近來 米國이 또한 中國에 同情的態度를 取함이 顯著하게 된 것이 事實이니 오즉 佛國이 領土關係其他의 感情上 英國과 協調的態度를 取할 可能性이 잇다할 것이다 그러나 假令 佛英이 步調를 가티 協調한다 하드래도 能히 露、米、日을 制禦하기는 不能할 것이다

六

以上에 列國의 關係에 論及한 것은 다만 吾人의 推測에 不可한 바이어니와 要컨대 今回動亂이 露國과 直接間接의 關係가 密接하게 되는 同時에 中國自體의 解放運動이 愈益熾烈하고 有力하게 될 것을 吾人은 確信하는 바이다 따라 中國民衆은 露國과의 關係를 今後에 더욱 鞏固하게 할 것을 力說하여 둔다 그리고 一步를 進하야 吾人은 中間에 優勝의 銳鋒을 모흐고 角逐中에 잇는 列國間에 這裡에서 如何한 意外의 破綻을 惹起할는지 또한 거긔에 注目을 不怠코자 하는 者이다

## 廣東發砲事件의 前後
### 衝突初에 中國人 ◇死者百七十名

(香港二十五日發) 廣東二十四日午後二時廣東發香港에 到着한 避難民中의 有力한 日人談話에 依하면 廣東에서는 數日來 種種의 流言蜚語가 流行하든바 二十三日午後 中國兵勞働者學生等約一萬餘人이 排外示威運動을 行하다가 此의 行列은 沙面에 對岸에 至하자 午後三時頃에 英國橋附近에서 先發隊와 群衆이 俄然히 大聲과 함께 居留地에 向하야 發砲하매 租界에서는 英佛兩國의 陸戰隊와 義勇隊等은 遂히 河岸에 土囊을 設하고 機關銃을 配置하엿든바 中國側의 發砲와 共히 此에 應射하야 約一時間에 亘하야 中國側死傷百七十名 外人六名 日本人負傷三名을 出하엿는데 日人은 二十三日午前十時頃에 驅逐艦에 避難하고 領事館員及民會議員十數名이 殘在할 뿐이라더라

## 廣駐英總領事는 兵力防止를 通告
### 廣東政府伍、外交總長에게

(東京二十六日發) 香港政廳에서는 二十三日左와 如히 公表하엿다더라 二十二日廣東英國總領事는 遂히 廣東政府外交總長伍朝樞氏에게 通告하기를 示威行列이 沙面에 侵入하는 時는 兵力으로써 防止할터이니 嚴重히 注意하라고 하엿다더라

## 日英兩國과는 永久經濟絕交
### 上海總商會에서 二十六日부터 斷行宣言

(上海二十六日發) 上海總商會는 當地의 罷市가 解決與否를 不問하고 二十六日부터 日英兩國에 對하야 永久的으로 經濟絕交를 할 旨를 宣言發表하엿더라

## 條約改正과 列國態度
### 米國은 贊成、佛國은 時期問題 日本은 表面的好意

(北京電) 不平等條約修正에 對하야 列國側의 意嚮을 聞하면 米國公使는 不在로 不明하나 積極的贊成인 貌樣이오 佛國은 贊成하나 今回의 問題에 關하여는 避하는 듯하고 伊國은 多數列國과 步調를 一致할 意嚮인데 日本은 表面은 好意的이나 時機不適이라고 主張하는 外交團一般의 空氣는 中國側의 增長的態度에 反對하는 氣分이라더라

## 嚴重抗議를 米國政府에 要求
### 在中米國協會에서

(上海二十六日發) 在中米國協會는 二十五日實行委員會에서 決議한 바를 本國國務省及亞細亞協會에 送하야 米國이 列國과 協調하야 中國의 排外運動에 對하야 中國政府에 嚴重한 抗議를 하라고 하얏더라

## 巴里에서 示威中國人 七名放逐

(쎈트르二十五日發) 巴里의 中國公使를 脅迫한 主謀者로 巴里中國共產黨의 首領인 「로훈트―시안」은 逮捕되엿스며 其他上海事件의 示威運動에 參加하엿든 七名의 中國人은 放逐되엿더라

## 條約廢棄提議와 日外務當局態度

(東京電) 中國에서 不平等한 條約의 廢棄를 提議한 機는 二十五日은 舊曆端午의 節인데 當日北京에서 學生團發起下에 國民的大示威運動이 行할 豫定이엿슴으로 北京政府는 此等民衆運動에 先하야 外交團에 提議하는 同時에 一方民衆運動의 攻擊을 巧妙히 避하려는 目的에서 出한 貌樣이나 此에 對하야 外交團은 何等의 回答을 할가 不然하면 默殺할가 兩者中의 一을 取할 것이나 中國이 眞實이 如斯한 希望이 잇슬 것가트면 華盛頓條約에 定한

一、廢督裁兵의 實行
二、未開港場의 開放
三、內政의 改善
四、司法制度의 改善

等을 早急히 實行치 안으면 안될 問題이다 然한데 中國은 治外法權撤廢에 對하야 列國이 此에 應한다 하더래도 華府會議의 開會外지 延期하고 잇는 貌樣으로 中國은 爲先華府會議의 決定을 實行치 안으면 안된다더라

## 日英兩國의 經濟同盟說과 日外務省의 推測

(東京電) 上海에서 日英經濟同盟이 成立한다는 風說에 對하야 外務省通商局에서는 右風說은 아마 左의 事實에서 胚胎되야 誇張的으로 報道된 것이라고 한다 卽 今回上海事件은 內外綿問題와 및 工部局對民衆運動의 衝突에 依한 것인데 當地日本側紡績會社는 英國의 同情잇는 保護를 受하엿다 其後 內外綿問題도 解決되려 함으로 將來 上海의 日英紡績業者는 組合을 組織하려고 日英領事가 其間에 斡旋하야 中國職工의 待遇도 向上식히고 아울러 斯業의 發達을 期하고 잇슴으로 風說은 此에서 胚胎된 듯하다더라

## 洪原救濟會 第一回分配
### 二千五百圓으로 每戶半袋式

咸南洪原郡에서는 罹災救濟會를 組織하고 同情金을 募集한다 함은 累報한 바 遠般滿洲에 注文한 粟米가 來着하얏슴으로 去二十二日午後五時부터 同會委員會를 同郡金貸會內에 開催하고 各面罹災戶數를 左와 如히 決定하고 爲先粟(一戶平均半袋)하야 各面에 依賴分給케하기로 하고 殘額의 맛치는 後로 募集되는 同情金은 第二回로 更히 分配하기로 決議하얏다더라

◇各面罹災戶數
鶴泉面一〇戶 平浦面三三 景面一四 景浦面六五 州翼面五五 熊源面三三 龍川面五四 龍雲面五八 好賢面五七 雲浦面三五 南雲面三一
計一四面 三三〇戶
◇同情金總額
金一、五六五圓二一錢 (洪原)

## 斧壤靑年會 創立總會

發起中에 잇든 斧壤靑年會는 其間準備가 着着進行되여 去二十四日下午七時半부터 天道敎堂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엿다더라 (平康)

## 龍江改修工事 期成會役員會

咸南中央을 縱流하는 龍興江의 水害를 避코저 永興、高原、文川의 三郡住民으로 組織된 龍興江改修工事速成會에서 代表者三人을 派遣하야 道와 總督府當局에 交涉한 結果 明年度부터 始工하기로 快諾을 어덧다 함은 旣報한 바이어니와 來月下旬에 政務總監下岡氏가 被害狀況을 直接視察코저 來한다 함으로 여러가지 事項을 協議코저 去二十二日午後四時부터 前記三郡代表期成會役員諸氏가 永興郡會議室에 모아 政務總監接待及培行委員選定과 河川整理地域에 든 個人의 土地에 對하야 見積以上의 價格은 期成會에서 負擔할 것과 可成的每戶幾人式出役할 事等을 決議하엿다더라 (永興)

## 北靑縣賞雄辯

北靑高普講習所學友會에서는 本月二十二日에 懸賞雄辯大會를 該校講堂內에서 開催하얏는데 演士의 活氣잇는 雄辯은 만흔 聽衆의 흥을 주고 無事閉會하엿는데 受賞者는 如左하다더라
一等 李龍淵 二等 金丙南 三等 全聖著 四等 朱環述 (北靑)

## 靑總任員 絕對否認決議
### 咸興靑年會에서 一、二個團體의 會員만은 不可

本月二十四日 咸興靑年會에서는 同會館內에서 臨時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靑總銓衡委員及執行委員可否回答要求의 通知에 對하야 左와 如히 決議하고 靑總의 新任委員을 全部否認하는 同時에 이에 對한 聲明書를 靑總에 發送하얏다더라

一、靑總發任員選擧通知에 依하면 地方細胞團體로부터 多數贊同이 有함으로 銓衡委員及執行委員을 豫定과가티 選擧하기로 可決하고 銓衡委員五人과 委員二十九人을 選擧하얏다 하나 贊同團體의 數字表示가 無함으로 未分明한 事임으로 同委員은 絕對否認할 것
一、靑總은 全朝鮮的總機關임에 不拘하고 엇던 一二個團體의 會員全體로서만 委員을 銓衡함은 甚이 不美한 影響임으로 委員을 否認할 것
一、靑總에 關한 ... 時에 各地方團體와 連絡하야 靑總에 對한 態度를 ○定할 것 (咸興)

## 成新學院發展

咸南利原郡西面松老家里에서는 敎育機關이 無함으로 三年前부터 當地靑年會後援下에 里民의 協同으로 成新學院을 設立하야 當地敎育界에 貢獻이 不少하든바 現在學生이 三十餘名에 達하엿다는데 現職員氏名은 다음과 갓다더라
院長 金周源 院監 金弘國 財務 金龍奎 敎員 金演治 (利原)

## 海州에 納涼音樂
### 黃海師範主催로

海州北本町에 잇는 黃海道師範學校에서는 每年이 때에는 納涼音樂會를 開하얏는데 今年에도 今日下午八時에 例年과 가티 그 學校校友會의 主催로 同學校內에서 納涼音樂大會를 開催하리라는 바 누구나 入場을 歡迎한다 하며 當夜의 順序는 二三十種이나 된다더라 (海州)

## 國境庭球
### 期日臨迫한 速速參加希望

安東縣靑年會와 本報支局後援으로 六月二十八日에 第一回國境個人庭球大會를 開催한다함은 이미 報道한 바이어니와 國境에 散住하는 同胞에게 如斯한 모임이 생긴다는 것은 實로 慶賀할 바인데 同會主催者側某氏의 談에 依하면 이로부터 年年히 如斯한 會合을 할 計劃인바 今年에는 萬事가 不完備한 外닭에 豫想가튼 盛況을 呈할는지 모르는 바이나 明年부터는 優勝旗爭奪戰을 하리라 하며 今年에도 初有의 擧事로는 아마 盛況을 呈할 듯하다고 云하며 參加區域은 奉天以南으로부터 宣川以北에 居住하는 朝鮮人에 限한다는데 豫定時日二十八日이 臨迫하엿슴으로 參加希望者는 速히 手續을 하기 조켓다더라

## 德川에 機業講習
### 敎員은 女子二人

平安南道에서는 從來에 平壤府內에 機業講習所를 두어 每年管內에서 女子三十名式 募集하야 機織業을 傳授하여 卒業生을 내여 보내엿스나 別로 效果가 업섯슴으로 今年부터는 方針을 變更하여 管內適當한 場所를 選定하고 巡回講習을 시키게 되여 第一着으로 去二十日부터 德川面事務所會議室에서 講習會를 開催하엿는데 講習生의 定員은 二十名이며 郡內에서 講習을 希望하는 女子二人이며 定員外에도 多數히 와서 배호기를 希望한다더라 (德川)

## 蠶繭共賣問題로 面長會議

平南德川郡에서는 春蠶繭共同販賣問題로 去二十四日面長會議를 開催하엿다하며 따라 各面에서 區長會議도 速히 開催하리라더라 (德川)

## 創立된 安州記者團
### 新思想促進 日人도 參加

安州에는 各新聞雜誌記者가 임에 十餘名以上에 達하엿스나 于今外지 何等의 妥協機關이 업서 매우 遺憾이 되든바 前般當地東亞日報支局과 本社支局의 發起로 當地記者團을 組織하엿다는데 日人도 文紙十數의 每日新聞當地支局記者도 來參하야 去二十五日正午에 當地洗心舘에서 同團創立總會를 開하고 如左한 決議가 잇슨 後 午後四時에 閉會하엿다더라
一、操觚界의 親睦을 企圖할 事
一、言論界의 權威를 伸張할 事
一、大衆共通의 新思想을 促進할 事
執行委員長 金秉杰 執行委員 許炯 金偉濟 谷內田 (安州)

## 投稿歡迎 啄木鳥

十四字五十行以內 作者氏名明記

### 統營先輩께

◇統營의 先輩여 우리의 現狀을 잘 理解하고 打開에 努力하는 先輩여! 우리의 生活은 날로날로 거ㅣ 水平線아래로 떠러집니다 그려 온갓 慘狀은 보고도 못볼만하외다 예참을 수 업시 慘憺하야 안습니가 그러면 이 現狀을 못본체 放任하고 말겟슴니가? 아니올시다 우리는 우리 스사로가 活氣를 더욱 내여 오직 健實한 方策으로 最後까지 奮鬪하여야 하겟슴니다 그러면 우리의 最善策은 무엇입닛가 첫재는 未來의 社會의 中堅될 健實한 靑年을 養成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卽 다시 말하면 少年의 體育을 獎勵하야 健全한 發育을 엇게하야 그네에게 모든 責任을 分擔할 素質을 忠實이 注入하여야 되겟슴니다

◇그리하야 京城의 學友會에 參加한 諸君이 이것이 社會에 對한 큰 根本의 位置를 占한 部分임을 自覺하고 今年夏期休業의 開際를 利用하야 來八月上旬에 統營少年蹴球大會를 開催하기로 하고 此의 準備에 着手하얏스니 社會에 奉仕한다는 오신 統營의 先輩여! 苦難이 多한 險境을 버서나라 하는 根本方針에 贊同하야 有爲有終의 美를 擧케하기를 손곱아 高悅의 날을 기다리오며 아울너 健鬪를 祝하나이다

◇또는 特히 敎育에 從事하는 先輩여! 體育이 三育中에 하나이라는 理論보다도 先輩여러분은 敎育을 밧는 어린몸이 不健强한 탓으로 그 어린몸 自體의 天與의 素質을 發揮치 못하며 世上사리의 準備와 義務履行의 訓練이 不足함을 아실 것이외다 그러면 어린 少年의 體質如何가 吾人의 新生命을 支配하는 唯一의 本題임을 ... 運動이나 經濟를 ... 바라나이다 (在京統營生)

## 不平沸騰한 蠶絲業組合
### 美名下에 暴利

平南德川郡蠶絲業組合에서는 年來로 郡內養蠶家에게 組合費를 徵收하며 蠶絲의 增殖을 圖하고 組合員의 共同利益을 增進함으로써 目的을 한다는 美名下에서 養蠶家의 利益增進은 姑捨하고 昨年春蠶共同販賣時期에도 該組合主催의 共同販賣價格에 比하야 實出當하고 共同販賣月期이 終了된 後 繭價는 急轉直下로 沸騰하엿다 하며 昨年에는 依額으로 六十錢式 引올 今年에는 組合數三十錢이던 것을 上하고도 春繭實期에 한번 巡迴도 업섯다하며 더욱히 組合에서 配付한 蠶種中 同郡還上面靑里의 分은 蠶種不良으로 거의 全部 損失을 當하엿다는데 當組合의 無誠意에 對하야 不平이 만타더라 (德川)

## 平壤에 繪畫硏究所

平壤畫壇界에서 期待하던 繪畫硏究所는 平壤藝術家의 新進篤學家 金觀鎬、金鼎鎬、金能邦 四氏의 盡力으로 『朔星繪畫硏究所』라는 名義로 來七月一日부터 硏究를 開始할터인데 東洋畫科二十人 西洋畫科三十人 速成科若干人을 募集하야 斯界에 稗益을 圖할터이니라 繪畫硏究希望者에게 一大警光이 될터이라하며 入學願書는 本月二十五日外지라더라 (平壤)

## 德川幼校運動盛況

旣報 平南德川郡邑內耶蘇敎會幼年主日學校運動會는 豫定과 가티 去二十日午後一時부터 德川普校運動場에서 開催되여 信徒一同의 讚頌歌와 金基柱氏의 祈禱及金義昌牧師의 訓辭가 잇슨 後 觀覽客三四百名의 盛況裡에 二十四種目의 競技를 次第로 進行한 後 마치엇는데 就中 同敎會幼稚園兒童의 天眞의 遊戲는 一般觀覽客으로 하여금 多大한 웃김을 주엇스며 來賓中으로서 幼年主日學生과 幼稚園兒童을 爲하여 金品의 寄贈도 不少하다더라 (德川)

## 烏川面救濟
### 粟米三十四俵로

慶北迎日郡烏川面은 東海沿岸一部分의 窮僻한 山間僻村으로 昨年旱虫災로 因하야 面內十六洞里中人口七百十四人을 救濟키 爲하야 面長陳性鍾氏의 發起로 面內有志人士에게 同情金을 募集하야 六百圓金額에 達하얏슴으로 粟米三十四俵를 買受하야 去五月廿八日에 第一回로 十六洞里에 分配하얏는데 同情諸氏와 金額은 如左하다더라

미쓰와農場 二百圓 增田秀三 五十圓 金基重 二十五圓 陳性鍾 二十圓 權泰純 十五圓 仲田淸、宮坂사히 金益秀 李方九 權重紳 金鍾奭 各十圓 金東壽 八圓 黃一淸 權泰曉 各六圓 金洛守 金相瓚 都樂元 金國洛 張順甲 金益祚 陳命臣 權熙永 鄭智重 金致洙 權泰根 各五圓 金相賢 金澤守 各四圓 薛洪瑞 裵福祐 黃元俊 李相圭 金基祚 林甲圭 李枝洙 林永浩 權宜鶴 柳寧樂 林遜秀 各三圓 韓鴻九 崔順鎬 尹連伊 李源道 千斗南 李準坤 金晋元 金大蓮 金炳澤 金學出 鄭基重 金邦佑 李贊培 崔錫俊 金鍋重 柳宜寬 崔應先 徐浩立 金寔 朴琪鎬 朴洞龍 各二圓 金振鎬 一圓五十錢
合計五百二十九圓五十錢 (浦項)

## 人民의 自進築港도 妨害하는 當局
### 不平이 藉藉

慶南巨濟郡舊邑角山船倉은 巨濟統營航路의 要津인바 海岸이 淺淺하야 渡船이 卽 接岸頭에 對이지 못함으로 交通上 매우 不便할 뿐아니라 艀板船賃을 따로 徵收함으로 一般은 큰 困難을 感하든바 巨濟面當局에서는 이 苦痛을 免키 爲하야 巨濟漁業組合을 爲始하야 現金四千圓을 募集하야 前記船倉을 改築하얏스나 關係道當局의 干涉이 잘되지 못한바 船隻은 依然히 不便함을 免치 못함으로 乘客은 金錢과 人夫 모든 힘을 提供하고도 不便이 如前하고 艀板貸은 依然하니 不平이 藉藉하다더라 (巨濟)

## 醴泉饑饉救濟
### 應援會에서 分給 滿洲粟三十八俵로 窮民三千餘名에게

朝鮮饑饉救濟會로부터 온 金品을 當地各團體及東亞朝鮮兩支局에서 引受하야 罹災地四個面에 分配하는 同時에 臨時應援會를 組織하얏다 함은 旣報한 바이어니와 本會에서는 其金品으로 滿洲粟三十八俵를 買入하야 去本月一日에 本會委員인 金碩熙、李基夏、裵炯福 四氏가 各一面式 擔當出張하야 左記와 如히 分給하는 바 分配하는 場所에서 朝鮮饑饉救濟會의 誠意趣旨를 簡單히 說明하얏다더라

| 面名 | 人口數 | 石數 |
|---|---|---|
| 虎鳴 | 二三七 | 三石五五五 |
| 知保 | 七〇一 | 七、〇一〇 |
| 豊壤 | 五〇九 | 五、六〇〇 |
| 醴宮 | 一、八六七 | 四、二〇〇 |
| 計 | 三、三一四 | 二〇、三六五 |

(醴泉)

## 一直夜學復興
### 九氏의 熱心으로 男女學生이 九十五名

慶北安東郡一直面松里洞에 一直靑年會發起로 客年八月中勞働夜學校를 設立하고 四五個月동안을 僅僅維持하다가 終乃經費問題로 閉門의 境에 至하엿든바 同里李成杰、張師顯外有志諸氏는 奮發하야 經費一般을 負擔하고 學生을 大規模로 募集하야 去十五日부터 다시 開學하엿는데 男子六十名 女子三十五名 合九十五名에 達한다하며 設立諸氏의 熱誠으로 將來有望하다더라 (安東)

## 相助俱樂部
### 自働車部員이 組織

慶北各自働車線路에 勤務하는 諸氏는 時代의 變遷과 人智의 啓發에 따라 團結을 要求하는 同時에 何等의 機關이 無함을 遺憾으로 생각하고 慶北相助俱樂部를 創立하엿는바 目的은 相助相扶의 親睦下에 職業紹介等 第一의 目的으로 하야 同俱樂部本部는 大邱에 置하고 店村、金泉、安東、에는 支部를 設하엿다는데 발서 會員이 七十餘名에 達하고 選擧된 任員은 如左하다더라
部長 金學振、總務 河齊俊、財務 孫義煥、書記 李茂昭、理事 崔在洪、金聖先、調査員 南廷玉 (義城)

## 馬山靑年委員會

馬山靑年會에서는 去二十四日午後四時부터 當地佛敎布敎堂에서 執行委員會를 열고 다음과 가튼 決議가 잇슨 後 同五時半에 閉會하엿다더라 (馬山)

決議
一、第二回對論會開催의 件
日時 七月五日午後九時
場所 馬山靑年會館
問題 敎育의 急先務는 男子? 女子?
演士 男子便 張在輪 金貫宣 金樂信
女子便 崔喆龍 金炳善 彭三辰
一、通度寺探勝日字延期의 件
日時 七月六日로 八日外지 三日間 (會費四圓)
一、東京에 잇는 高麗工業會巡廻講演隊後援의 件은 來七月執行委員會外지 保留하기로 함
一、來秋부터 早起會組織의 件
一、端午鞦韆노리의 件

## 二運靑年委員會

巨濟二運靑年會에서는 去二十一日下午一時에 同會館에서 第一回臨時執行委員會를 開하고 臨時議長辛振櫨氏司會下에 左記各項을 決議하고 同五時에 無事히 閉會하얏다더라
一、會員整理實行의 件
二、會費等級決定의 件
三、會費及義捐金收領의 件
四、巨濟靑年聯盟主催의 夏季講座聽講員募集과 同聽講員宿所에 關한 件
五、二運少年會組織에 關한 件
六、衡平運動을 積極的으로 後援할 件
七、貸付金整理에 關한 件
八、勞動夜學獎勵의 件 (巨濟)

## 巨濟에 雨量未洽

巨濟島에서는 今春以來旱魃이 繼續하야 農作及漁獲에 만흔 被害가 잇다함은 旣報한 바이어니와 去十八、九日에 降雨하얏스나 每所에 二斗假量에 不過하얏슴으로 未洽의 歎이 不無하다더라 (巨濟)

## 少年團主催로 講習會開催

全南莞島郡古今面驪山少年團에서는 同團員과 및 無產階級의 子弟들 中으로서 아즉 普通敎育만 마치고 上級學校에 留學하지 못하는 學生을 爲하야 五大學年級程度로 四十餘名을 藥山公立普通學校敎室에 收容하고 每日午後부터 朴成來 李太浩 兩先生이 無報酬로 敎授하는 바 成績이 매우 良好하다더라 (莞島)

## 『農民聯合會』로 改名하엿다

全南順天農民大會聯合會의 臨時執行委員會를 去二十四日午後五時頃에 本事務所에서 議長金基洙氏司會로 開催하고 徐丙寶氏의 經過報告와 李蒙珉氏의 提案으로 決議된 議案은 如左하더라
決議事項
一、順天農民大會聯合會를 農民聯合會로 變更하고 追後大會의 承認을 得할 事
一、無過失한 小作權移動에 對하야는 從前과 如히 不斷할지며 正當한 理由가 有한 小作權移動이라도 不拘하고 今年中에 耕作할 土地의 作權을 今年中에 剝奪을 擔行하는 것을 絕對不應할 事
一、農村狀況과 小作爭議의 實況을 調査하기 爲하야 來七月十日外지 各面에 出張할 事
出張區域과 擔當委員
黃田 月燈 朴炳斗
樂安 東草 別良 徐楠等地
徐丙寶 住岩 松光 外西 李昌洙
道沙 海龍 李榮珉
西面 雙岩 金基洙
上沙 順天 金益斗 (順天)

## 南原에 少年庭球大會
### 勝利는 南原郡

南原靑年會體育部主催로 去二十日에 少年庭球大會를 開催한바 南原、雲峰、金池各公普校少年團이 參加하야 同日午前十一時부터 南原公立普通學校『코―트』에서 晋在修氏開會辭와 井上校長의 主審下에 開戰되야 各陣의 必勝的歡呼와 觀覽群衆의 拍手로 一大盛況을 이루엇스며 最後의 決勝은 南原軍에 歸하얏는데 會長鄭光玉氏의 優勝旗授與式을 擧行한 後 三時二十分에 無事히 閉會하엿다더라 (南原)

## 光州에 南朝鮮庭球
### 來月十八日부터

光州靑年會에서는 創立五週年紀念을 하기 爲하야 當地東亞、時代、朝鮮三支局의 後援으로 南朝鮮庭球大會를 來月十八、九日兩日間 當地興學館『코―트』에서 開催한다는데 參加規程은 如左하다더라
申請期日 七月十五日外지
時日 七月十八、九日
申請場所 光州靑年會
參加金 三圓(一團體三組)
使用毬 角一軟球
抽籤場所 光州靑年會 (光州)

## 山外面救濟會
### 第一回分配 募集金額四百餘圓을

井邑郡山外面에서는 去三月頃에 同面有志諸氏의 發起로 同面旱害救濟會를 組織하고 該會幹部一同이 誠心으로 繼續活動하야 오든바 去七日에 總募集金四百五十七圓으로써 同面事務所에서 同面窮民一同에게 分配하얏다는데 義捐諸氏와 金額은 左와 如하다더라
金在國 八十圓 金永錫 六十八圓 李承儀 五十圓 林熾圭 三十圓 李鎣珪 三十六圓 宋榮祚 二十二圓 金斗鉉 七十圓 金東奎 十四圓 朴墉來 五圓 殷定杓 十七圓 朴秉來 六圓 朴泰老 五圓 朴與守 八圓 李聖求 五圓 姜俊秀、崔泳錫 各四圓 金成植、森田一 各五圓 朴琪泰、李奇玉 各三圓 納東錬、金文述 各六圓 金容九、金炯坤、張煥國、朴榮柱、宋圭燮 各二圓 (井邑)

## 宣言綱領制定
### 金堤衡靑

全北金堤衡平靑年大會는 昨年三月부터 創立되엿스나 還來有耶無耶에 歸함을 切實히 痛歎한 會員은 다시 必死的誠力을 다하야 남과 가티 우리의 압길을 開拓하자는 同際下에 去二十四日午後十時半부터 邑內金堤衡平分社內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金仕奉君의 司會下에 經過報告를 마친 後 同會의 宣言과 綱領及規約을 通過하고 各部의 任員을 改選하엿다는데 選擧된 委員은 如左하다더라
庶務部 趙良奉 敎養部 金仕奉 經理部 申東奎 體育部 金水同 (金堤)

## 谷城에 庭球會
### 三省團主催로

全南谷城郡三省團은 創立一週年을 紀念키 爲하야 本團이 世上에 出現된 來二十八日에는 同團主催와 谷城靑年會와 本報支局의 後援으로 谷城公普校『코―트』에서 庭球會를 開催하리라더라 (谷城)

## 長興에 高等科講習

全南長興公普校長 尾崎加四衛氏는 當地兒童으로 普通學校를 卒業하고 上級學校에 通學치 못하는 學生과 前途를 爲하야 尋常高等科程度로 講習會를 設置하야 每日午後三時부터 同四時外지 敎授할터이라는데 同講習會에 志願者가 四十餘名에 達한다더라 (長興)

## 仁川金組總會

仁川金融組合에서는 지나간 二十二日午後二時에 總會를 召集하고 前合田理事退職慰勞金으로 金二千圓을 支拂하기로 可決한 後 同組合事務所新築에 對한 報告가 잇섯다는데 建築費는 二萬圓이라더라 (仁川)

## 忠橋幼年美擧

開城忠橋禮拜堂內에 在한 幼年主日學校에서는 去十三日 同校創立紀念式을 兼하야 花主日祝賀式을 擧行하얏다 함은 旣報한 바이어니와 同校어린 同件一同은 禮式擧行當時 一般觀覽客에게 돌아 集合된 金額十三圓을 本報支局에 依賴하야 饑饉에 부르짓는 可憐한 同胞에게 傳達하여 달라고 하엿스며 其翌日에는 同校學生一同은 各病院에 와서 病苦에 呻吟하는 患者를 尋訪慰問하엿다더라 (開城)

## 烏山相助會總會

水原郡烏山相助會에서는 去二十五日正午부터 靑鶴里後山林間에서 第二回定期總會를 開催하고 經過報告와 決算報告及會則修正을 通過하고 委員改選과 事業方針에 對한 討議가 잇슨 後 同午後五時부터 創立一週年紀念으로 餘興이 잇슨 後 午後七時에 烏山相助會萬歲三唱으로 散會하엿다는데 改選된 委員은 左와 如하다더라
委員長 朴敬夫 委員 孔炳政 邊基在 李成宇 朴莊實 李明燮 (烏山)

## ◇寸鐵◇

【金堤】 朝鮮에서는 何處를 勿論하고 잇는 缺點이라하겟지마는 惟獨金堤에 잇는 各團體의 會合에는 依例히 『二時間以上四時間外지의 에누리』를 한다고 會則에 何條에 『遲參』이라는 明文이 잇는지?

【莞島】 古今公立普通學校長 趙炳顯은 該校運動部總會時에 議長을 選定하고 動議이니 再請이니 異議이니 改議이니 한 것을 보고 『그래서는 新靑年에 갓가워 못쓴다』고 하엿다니 그런 人物을 校長으로 둔 그 學校는 不良靑年養成所이라 할는가

【海州】 郵便局事務員들은 日語만을 使用하기 때문에 日語를 모르는 사람은 不便이 甚多하다고 밥도 日本產의 쌀로 지은 밥만 먹는지

【德川】 平安南道에서는 道內主要各地에 大規模의 乾繭場을 建築키로 되여 本年度에는 德川邑內에도 建築한다더니 事實臨迫한 昨近日에 와서 僅僅히 某地에 着手하엿다고 夏秋蠶專用乾繭場인가

【永興】 郡守任某는 道路視察次로 孟山外지 出張하엿다가 平壤、新義州、安東縣等地를 求景한 後 京城에 도라왓는데 隨行員인 山三面長에게 外지 出張命令을 追附하엿다고 아마 不當旅費를 혼자 먹기는 좀未安하든 貌樣

## 全楊州少年少女懸賞雄辯大會

時日 七月十一日午後八時半
場所 議政府公會堂
參加期日 七月四日外지
參加資格 十七歲以下의 少年
演題 隨意
主催 議政府基督靑年會
後援 東亞日報楊州支局 朝鮮日報楊州支局

## 期米 二十六日
### 仁川期米 第二報 後場小落

前場에서 四十圓七十一錢의 突高와 共히 三十八圓二十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後場에 入하야 阪地初付 四十圓七十七錢의 報를 接하고 三十八圓二十九錢에 場을 始한 後 阪地二節 六十八錢으로 六十六錢外지 反落함을 受하고 二節 十九錢으로 突落하더니 買氣又復旺盛하야 阪地六十六錢의 同事로 六十五錢外지 小弛함을 不拘하고 二十八錢으로 五節二十錢外지 跳返하엿스나 阪止五十六錢인 九丁反落을 據하고 六節十九錢으로 結局十一錢에 案外軟弱로 場을 止하니 高低의 差는 十八丁이며 阪仁의 鞘는 二百五十五丁이더라

### 大阪場況 二十六日後場

今後場阪地場況은 『마바라』筋의 利喰으로 四十圓七十七錢에 場을 始한 後 兵庫後報의 低落을 受한 軟派의 實賣으로 結局六十錢臺로 崩落하야 五十六錢에 軟弱히 場을 止하엿다고

### ◇各地止價◇ 二十六日後止 昨止比較

| 地名 | 止價 | 昨止比較 |
|---|---|---|
| 大阪 | 四〇、五六 | 三高 |
| 東京 | 四一、一三 | 四七高 |
| 兵庫 | 四〇、二九 | 四高 |
| 下關 | 四〇、〇三 | 一四低 |
| 桑名後 | 四〇、三五 | 四五高 |
| 名古屋夕 | 四〇、二〇 | 同事 |
| 金澤 | 四〇、六六 | 七高 |
| 熊本 | 四〇、三七 | 一七高 |
| [illegible] | 四〇、五一 | 九低 |
| 仁川 | 三八、一一 | 五低 |

### ◇阪仁氣配◇

大阪 三、四錢低
仁川 三十八圓〇、七八

### ◇各限俵合◇ 二十六日後場

▲賣方 ① 四〇〇 ⑦ 一、二〇〇 (計 三、九〇〇石)
▲買方 中限 (計 四、九〇〇石)
▲賣方 ① 一〇〇 ⑦ 二〇〇 ⑥ 一、九〇〇 ⑬ 六〇〇 ⑤ 一、九〇〇
▲買方 先限 (計 二五、七〇〇石)
▲賣方 ① 五、八〇〇 ⑦ 一六、三〇〇 ... 一、一〇〇 ⑤ 三〇〇 ... 一、二〇〇
▲買方 ⑦ 三、五〇〇 ⑤ 一、三〇〇 ... 四〇〇

# 莫上莫下인 兩軍의勇戰猛鬪

## 本社主催野球리ㄱ戰第九日

### 갈사록비등하는만도의인긔

본사주최 중등학교야구『리ㄱ』전(中等學校野球리ㄱ戰)의데구일은 역시 휘문구장(徽文球場)에서 작이십육일 오후네시부터 신흥우(申興雨)씨 구심과 박천병(朴天秉)씨루심(壘審)하에양정대휘문(養正對徽文)의 백병전이 열니엇섯는데 만도의『판』은이날도 또한 내리쪼이는 뜨거운 볏을 무릅쓰고 그넓은 구장이 좁다할만큼 만히모혀 가히 삼사천으로 셀수잇섯다 이윽고『엄파이』의경기를 선언하는구뎡이내리자『필』의용사는 각기필승을 자긔하고 필사의분투를 계속하야 실로 동양호각의 감이 잇섯는바 량군의

긔세는 막상막하로 데구회말까지 삼대삼(三對三)의 동뎜을지속한결과 드듸어 승부가 잇기까지 회수를 연장하야 데십일회말에 이르러 휘문군이 천추의 한을 먹음고 오대륙(五對六)의 한뎜의차로 양정군에게 참패하고 마럿슴으로 동일합시경에 경기는 끗낫는데 이날 다른때의 경기보다도 가장성황을 이루엇섯스며 강뎍휘문군을 격파한 양정군의 어린용사들이 깃붐에 차 열광하는광경이 자못장관이엇더라

## 大震少年이

### 중국공인의동정금모집

북만주녕고탑(北滿洲寧古塔)에 잇는 대진청년회(大震靑年會)에서 금번상해사건에대하야 중국사람들과 동일한보조를 취하기위하야 선전『비라』도 박아돌리며 민중을향하야 강연도하는 데이제소문에의지하면그청년회 소년부의 소년들이 상해에서 동맹파업한중국공인(工人)들과부탕도화(赴湯蹈火)도사양치안코 싸우는학생들에게 동정하기위하야 동정금을모집하는바 소년들이 돈,혜식자반하야 여러 유지인사를방문하고 동정금을 힘잇는대로모흐는중이라더라

## 假醫生의 殺人逃走

### 노병환자에게 벼겨찜질을해

황해도재령군(黃海道載寧郡)에 산다는 박수연(朴壽淵)(三)이라는자는 근일 황주(黃州)방면으로 도라다니며 자긔는의사인데 무슨병이든지 못고치는병이 업다함으로 이말을듯고 황주군주남면 대열리수죽동(黃州郡州南面大悅里水竹洞)최종선(崔宗錫)(三五)이가 수년전부터노병으로 신유라가 그자의말을듯고그러면 내병을 좀고치여달라한즉 이곳에서는 내왕하는 사람이만어서 고칠수가업스니 조용한 데로가서일주일만치로하면 곳낫는다고 함으로 권긔최종선은 병고치기 위하야 조용한곳을차자 황주군 영풍면 지풍(黃州郡永豊面) 안영조(安永祚)의집으로가서 방하나를어더가지고 치료를밧게 되엿는데 그자는벼人거(租穀)를살마가지고 전신에다벼人거를싸고 소론환자는 신한고통을 참다못하야 그만 두겟다한즉 그고통은나가는증조라고 하면서 환자를 뭄작못하게 하여노코 일주일동안이나 찐긔와가티 찜을식히여 거의 죽게되매 그자는어데로 도주하고 최종선은 드듸여 그날밤에 그만죽고마랏는데 이사실을 탐지한황주경찰서에서는 방금사방으로 범인을 수색중 이라더라(황주)

## 銀行돈을 橫領逃走한兩人

### 조선안에 드러온형적이잇다

일본도근현(島根縣)에원적을두고중국봉텬부사뎡(奉天富士町)사번디에살면서주식회사정륭은행봉텬지뎜(正隆銀行奉天支店)의대부계주임(貸付係主任)으로잇는강각정의(江角正毅)(三五)와 혜주군북유면(惠州郡北栢面)사번디에원적을두고권긔강각정의와 한집에류하면서 동은행 현금출납계주임(現金出納係主任)으로잇던 리종원(李鍾元)(二一)량인은 공모하고 지난삼월 이십구일에강각은고향에잇는모친의병이 위중하다고청가원(請假願)을데출하고리종원은사면원(辭免願)을각각데출한후사월 사일에 이르러 모다종적을감추고 말앗는데 동은행에서는그후 문부를자세히검사하여본결과권긔량인은 작년십일월일이후현금 십여만원을횡령한사실이발견되엿슴으로즉시소관경찰서에고발하야수색을한즉강각은동디류뎡 택뎡(澤町)사번디에잇는예기(藝妓)『스미』(八)를다리고 가고리종원은동디십간방(十間房)에잇는봉텬권번(奉天券番)안외무뎐(武田)『스이노』라는기생을다리고갓는대최근에조선안으로잠입한형적이잇슴으로대련(大連)에잇는관동령(關東廳)으로부터 경긔도경찰부로 통고를 하게되여 동경찰부로부터는 디방각경찰서에 그서류와 동시에 범인의사진을 첨부하야 발송하엿슴으로시내각서에서는범인을 엄탐중이라더라

## 『훔치』와『굿』을撲滅

### 安州各團體緊急會議

### 대표자지선뎡하야활동중

지난 이십사일밤 팔시경본사 안주(安州)지국내에서 안주청내에잇는 안주청년회(安州靑年會)긔독청년회(基督靑年會)면려청년회(勉勵靑年會)텬도교청년회(天道敎靑年會) 삼수구락부(三水俱樂部)의 다섯단톄대표자와 개벽잡지안주지사(開闢雜誌安州支社)동아일보(東亞日報)조선일보(朝鮮日報) 량지국의대표자와 긴급회의가 잇섯는데 그내용인즉 금번새로개설된 성내률산시장(栗山市場)에서는 률산주민 의돈을모아소위 미신(迷信)이라하야 누구나 싀인사람이면 하지안는『굿』을 약십일간의 예뎡으로 막대한비용을쓰면서개최한다는바이것은 개인의일이면국인할수잇지마는 적어도일반의복리를헤아리며또한부산자의돈을허비한데비용해버릴변이니 방지책을 강구하지안흐면 안된다하야 권긔팔개단데의대표가 발긔자들에게 방지의 교섭을하기로하엿스며또지난이십삼일안주성내건인리(建仁里)에 소위보텬교정교부(普天教正教部)의

간판이 나타나며안긔두(安基斗)안용화(安用化)두명이 동교의 권도목뎍을 강구하려하는 중인즉 혹세무민하는이교를 박멸함이엇더냐하는 토의가 잇섯는데 이에대하야는 감시만 하다가 엇던 행동이 잇슬그때에 비로소 처치하기로하자는결의가잇섯다더라

## 栗山市場의굿은

### 대표가현장에 출장하야교섭

권긔 팔개단데의 대표자로부터 지난이십오일 아츰 팔시경률산시장의 간부들과 주민들을차자 『굿』의 미신덕선뎐 또는미신인것과 그것의불필요를 들어방지함을 권한즉 그편의대답은미신의미로『굿』을함은 아니며 오작 밥버리다운 흥행으로 률산시장을 흥성케하자는 일종의 광고연이며설사미신덕 선뎐이 되는한이잇더라도 이미돈을 륙십여원이나 들여서 준비한것이며또무산자인 우리로서는 다른영향을 가릴여유가업다고구든뜻을표함으로 각대표들도 할수업시그저 듯나왓다는데,이에대하야는 다시각단데의 회의가 열닐모양이라더라(안주)

## 惡舍音의暴言

### 『내배부두면그만』

### 남의말은소용업다

전남순천군 황뎐면대치리(順天郡黃田面大峙里) 악디주로유명한 박승림(朴勝林)의차인 박학서(朴鶴緖)는구례군내산, 외산(求禮郡內山,外山)량면에 잇는 박승림의 소유토디를 매두락에 오원이상의 소위소작소개료(小作紹介料)를바다 먹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십구일에 권괴박학서란자이 구례읍에돌어왓슴으로 학서의친우모가 학서에게대하야 충고로말하되『사람이누가 리익을실혀 하는사람이잇슬가만은무리의리익을조화하기로 그와가티 불도덕한일을 해서야 되겟는가』한즉 박학서는 말하되『남이야 무엇이라고하든지나의배만 불으면그만이다』고와가티 횡포무도한 말을함으로 학서에게 말하든모는 하도어이가업서서 그만그대로 도라왓는데 일반시사는말하되 그와가튼 자는전국뎍으로배척하여야지그외에는 아무말을하여도 쓸데업다고라매한다더라(구례)

## 鄭氏檢擧와 禹氏引致

### ○○단원과련?

시내종로 경찰서에서는 이십오일아츰에 시내모처에서 상해(上海) 북경(北京)방면을 거쳐드러온 뎡웅(鄭雄)이란 청년을 몰연히 검거하자 그날오후에시내간동(諫洞)능인녀자학원(能仁女子學院)안에잇는우봉운(禹鳳雲)씨를다시 검거하엿다는데사건의 내용은 절대비밀에부치나 탐문한바에의지하면 해외에잇는 ○○단원이 조선에침입하야 권긔뎡웅을 차저왓다는혐의로 그와가티 검거취됴하는것이라더라

## 綾州公普生盟休

### 原因은男女敎員의醜聞

### 이러한학교에서배홀수업다고

전남 능주공립 보통학교(綾州公立普通學校)오륙학년 전부백여명은 금월 이십일일부터 동맹휴학을하얏는데 그에 자세한원인을 드른즉 권일삼촌(三村)이라한일본인 교원과박성심(朴聖心)이라는 녀교원의 사이에불미한 행동이 잇다고동교교원으로잇는 최래원(崔兌源)씨가자긔숙소로 박성심을 오라하야문책한일리잇서는데 박성심은 당심의

가책이 되엿는지사실리무근한일을분개함인지 그 즉시에수건으로 눈물을가리고 소리를내여울고자긔집으로도라간일이잇슴으로꼿이야기거리가되엿든바학생들도이말을듯고서는우리어린이의장래를신성한학교에서교편을잡은선생들이이와가티 추악한행동이잇서서 일반의이야기거리까지 되엿슨즉 우리는 그들에게교수를 바들수업다고수일전에 오륙학년 전부가동맹휴학을 단행하려고 학생측에서 교장에게대하야 교섭이잇던즁교장의말이『이두사람의 사실을 잘됴사하야 정당한처치를할터이니

교장만 신유하고 기다리라』고하야 지금까지 교장의처분만 기다리고교수를 바다와

## 春繭生產者를 위하야

### 본보성천지국활동

평안남도성천군(平南成川郡)은 금년수견액(收繭額)이 륙천석가량인데 매석평균 백원으로륙십만원에 달하는거액인바 일호평균 오십원이나되야 잘견(繭)의 길흉(吉凶)는성천경제계의큰영향을 주어오는데 순박한촌민들은 그런생산품을 상당히방매(放賣)하지못하고 간상배의롱락에 드는일까지 잇서엇던사람은 생갑도되지안어파산(破產)을당하는 사람까지잇섯다 그럼으로본사성천지국(本社成川支局)에서는 이런농민들을위하야나날이보도되는 경제난에 소식을따라 등사하야 만여호생산자에게알리게되엿는데이후부터는시세의 변동이잇슬때 마다통지하기로되엿더라

## 間島饑饉과

### 유지동포의동정

작년의 흉작(凶作)으로 인하야 간도동포(間島同胞)의 생활이 날이갈사록 곤란하여간다 함은 본보에 여러번 보도한바어니와그중에도 동불사조선인민회(銅佛寺朝鮮人民會)구역은더욱심하야 주린배를 움켜쥐고어린처자와 늙은부모로 더부러살길을 차저 서로령(露領)방면에 이주하는동포가 하로에도 수십명식되는데 이와가튼 광경을목도하는 당디유지제씨는 만분의일이라도 이를구제키 위하야각방으로 뜻잇는동포의 뜨거운동정을 구하든중이든바 벌서아래와가튼구제미(救濟米)가답지하엿다더라(간도)

▲泰平鄕泰東村韓鼎祖黃租四十五石金禹鉉許元伯美郡監黃租各五石

▲泰平鄕平村金秉熙白米十石

## 警官과 格鬪한殊常漢一名

### 한명만데포되고한명은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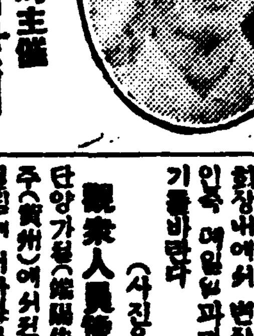
### 중대범인가하야엄중취됴중

지나간 이십이일 오후다섯시경에 황해도재령읍(黃海道載寧邑)부근에서 재녕경찰서순사영현삼(英賢三)과엇던장한두명이 격투를하다가필경재녕서원의 응원으로 인하야두장한중 한명만데포되고 한명은 도주하야 종적을모로게되엿다는데 격투의원인은 권긔순사가순찰도중에 수상한사람두명이 재녕읍내 축동(築洞)(아外시아가 밀림한곳)에서밀회를하다가 경관을보고 긔피하는눈치가잇슴으로 추격힐문코저한즉두명은 닷짜곳자로 대항하기를시작하엿다하며 피착된 사람은자칭황해도신천군온천면송뎡리(信川郡溫泉面松亭里)구백사십번디에 거주하는 리괴선(李基善)으로 밀회한리유를말하지아니함은 물론가려잇든 청년의 주소씨명도모른다고 대답할뿐이요 그외에는 무상씨어른지 용납지안음으로 방금동경찰서에서는 외외의 사건관계자나 아닌가하야 엄중취됴중이라더라(재녕)

## 本社黃州支局主催 變裝記者찻기

### 第二日 (陰五月七日)

### 리병현군출동



본사황주지국(黃州支局)에서주최하는 변장긔자 탐방(變裝記者探訪)의 데이일은이십칠일(음오월칠일)에 지국 긔자리병현(李秉鉉)군이 동일밤 아홉시부터 열시까지 사이에역시대회장내에서 변장으로 나타날터인즉 매일 파가를 방식으로찻기를바란다

(사진은리병현군)

### 觀衆人員豫想投票

금번 단양가뎔(端陽佳節)을 긔회로황주(黃州)에서 권조선각희대회가 열림에 대하야본사 황주지국에서는 금상첨화(錦上添花)로 동대회를 일층번화롭게하는 동시에애독자제씨의 편의와 흥미를 드리기위하야 관람우대권(觀覽優待券)을발부하고 또한변장긔자(變裝記者)찻기도잇섯든것은 다시 말할필요도 업거니와 동대회의 마즈막날(最終日)에는대회참관인원예상투표(集合人數豫想投票)에 대하야 회가잇슬터인데 오후세시에 대회에모힐인원수를예상하야당일본지국으로부터배부하는투표권에 긔입하야동일오후두시까지장내에배치한투표함(投票函)에너흐시면 본지국에서는 전부심사를 마치고 동오후네시에 발표할터인바 마처신분에게는 아래와가튼상품을 데공하기로하되 동수(同數)가잇는때에는추첨으로결뎡할터이더라

一等一人 書床一個

二等一人 本報二個月分

三等九人 同 一個月分

(황주)

▲新院面大興村殿俊黃太十五石車南七粟七石安基億粟五石

▲大北面大陽村朴奮成粟四石大豆一石

## 昨夜京城의 暗黑世界

### 이십분간 뎡뎐으로

이십륙일 밤아홉시 부터시내종로네거리등으로는 전부 뎡뎐으로약 이십분 동안이나 뎐등이 써지여서 몰연히 암흑세계를이루웟스며 더욱 야시(夜市)에는 사람이 잡답한중에 몰연히 암흑세계를당하엿슴으로 물건수습에 비상히곤난하엿다더라

## 紛糾中의永生校

# 一學年生이또盟休

### 학교당국의무성의함에분개

### 삼학년생의맹휴에동정하야

함흥영생학교삼학년(咸興永生學校三學年)일동 사십일명이 승격문데(昇格問題)로맹휴하얏다함은 이미본보에 루차보도한바어니와이가티중대한문데가 생긴학교당국자들은이에대한선후책에고심하는빛은 도모지 보이지아니하고오히려태연한태도만계속하야사회의주목을끌고잇든중 지나간 이십삼일에 일학년일동백이명이 삼학년의 뒤를이어또 동맹휴학을하얏다는데 그리유는 역시가튼승격문데로 삼학년일동의 선후책에대하야도 학교당국자의무성의함을 분개하는바잇서 결국도더히 참을수업서 맹휴하게된 것이라는바 삼학년생일동이맹휴한것은 자긔네의 학년만을위함이 아니고 학생전테를위하야 그가티 희생한것임으로우리들도 우리를위하고 또한생도를위하야 정의(正義)의싸홈에 동렬(同列)하는것이 맛당하다하야 그가티또휴학을하게된 것이라는바 이로써분규의불길은 뎜차만연하야 형세가자못 위험하다는데 학교당국자의 금후의태도는 또한엇더할는지? 이러한문데는 교육계에서생긴 불상사라고 하지만동시에사회에 관한문데인즉 문데가진행되는 형세를보아서 사회덕으로 간섭할필요가 잇지아니하겟느냐고 일부사회의 여론은각각으로 비등하야 가는중이라고하더라(함흥)

## 寃聲의討論會

### 압박,멸시,협잡등의

### 蠶繭共同販賣와不平

### 착취를당하고

의주군은양잠(養蠶)에뎍당하야 잠업디로 평안북도에 유명한바양잠자가 삼천사백여호에 산견액이 이천구백여석에 달하는데일반양잠가는 다년고열(炎天高熱)의고통을참아가며 미구에만족한보수(報酬)를 바들줄로 밋고 피땀을흘리여고치를 수확하엿스나 소위공동판매로 인하야 상당한보수는고사하고무한의압박(壓迫)멸시(蔑視)와협잡(挾雜)으로써착취를 당하고원성(怨聲)이충텬하는바금번에도판매소 부근에는매일원성의 토론회가 생기는상태이라더라(의주)

## 移秧時에 移作하랴다가

### 로동회의조뎡으로 해결되여

경남합천군 상백면 륙리 (陜川郡上栢面陸里)에 원적을두고현재진주군 진주면 평안동 (晉州郡晉州面平安洞)에 거주하는부호정대규(鄭泰圭)라는 디주는 이앙시긔(移秧時期)당한이때에 얼마되지도 안는논(畓) 사두락을합천군죽전면(陜川郡竹田面)에잇는 구소작인은 소작료는다 디밋소작인의 처디에잇서서 디주에대하야 공손치 아니하며횡포하다는리유로 신작인(新作人)을 뎡하야합천군죽전면(陜川郡竹田面)에 잇는오순필(吳順必)이란 사람에게로이작(移作)을함으로 삼가로동우애회(三嘉勞動友愛會)에서 [illegible] 조뎡하다고힘을다하얏스나돈지 안음으로지난이십사일에 권긔로동우애회에서 간부수인이 출장하야교섭한결과 결국 이사두락은삼가로동우애회에서 영소작(永小作)으로 변동하기로결뎡하얏다더라(진주)

## 通度寺住持— 金九河氏는辭職

### 학무국장권고로

경남양산(梁山)통도사(通度寺)에는 몃해사가 오랜만를 그곳에서 발생되는 사건도세상사람의 이목을끌다십히 현주지(現住持)문데로 두파에갈리어분규중이던 본보에루보한바어니와 반대파에서는현주지김구하(金九河)씨를 파면식혀달라고 당국에루루 진정을함으로 총독부당국에서도 그대로 늘볼수업다하야 사월중순경에 유종교과장(兪宗敎課長)과 강본사찰계주임(岡本寺刹係主任)을 파견하야 사실을 조사하엿다 그후에 다시반대파(反對派)의 정해운(鄭海雲) 허몽초외 멧사람을 지난 이십이일 오전 시경에 총독부학무과에 호출하야유과장과 강본주임 립석하에량편의 사건 뎐말을 드른후다시 이십삼일에는 학무국장까지참석하야 권일경과 사항을드른후에량편에대하야화해를식히려고하얏스나 반대파에서는 끗까지 반대를함으로 최후에학무국장은 주지김구하씨와 약한시간동안별실에서밀담한후김구하씨는 사직할것을성명하고 사직서(辭職書)는추후에데출키로하야 오래동안문란하던 사건은이에서 일단락이되고 말엇다더라

## 捕手가 誤射

### 조선인포수가 노루는안맛고사람을노하서

지난륙일 이십이일에 함북경흥군웅긔면 백학동(咸北慶興郡雄基面白鶴洞)산가운데는 살인사건이발생하엿는데이급보를접한 웅긔경찰서에서는경관수명이현장에급행하야사실을됴사한후범인은즉시 데포하엿다는데 이제그내용을드르면 죽은사람은 웅긔항에사는포수(捕手)일본인면촌(田村)이오범인은웅긔항내 사는김제경(金濟慶)이라는사람으로권긔 면촌이는 그날아츰에 노루산양을 떠낫는데 권긔김제경이는

평소에 친함은 아니라산간(山)에 경험이만흠으로조력(助力)하여달나하고함의갓섯는데 산에가서는권긔김제경에게도총을 주어서 좌우로갈나서가지고 여기서단니는동안약속하고헤여저서단니는중원안긔곳은 산골이라풀숩이 깁흔가운데 며군다나누른산양옷을입은면촌이는풀숩에치면서 긔여가는것을『노루』인줄알고 그만총을한방노코는그자리에달려가본즉 그디경이 되엿다는데 총노흔사람은 그만정신업시경찰서에달려와서 그사실을 자백하엿다 더라(웅긔)

## 모긔장에불이부터 愛子二名의死傷

### 일반은주의함이필요하다

지난 이십이일 오후열한시쯤되야 진주읍내성동 이백삼십일번디(晉州邑內城內) 우치길(禹致吉)(五六)의 집에는내외는어린아들들을 모긔장(蚊帳)안에 재워두고 따로따로 아랫방과뜰에서 더위를 못익여 끈히자다가그사랑하는아들하나가불에타서죽어버렷다는데이제그자세한사실을 듯건대모긔장갓가히켜두엇던등잔불(燈火)이모긔장에부터서끈히자든복률(福律)(三)과또복률(又福律)(九)두어린아히를며다 업시태워서또복률이가뜨거움에 견듸지못하야소리치며뛰여나오는그때에야 그의어머니는 비로소깨여 황황히 들어가불을쓰랴하얏스나 복률이는원악 자다가 전신소상(全身燒傷)을 당하야 인사불상이 된후불행중 다행으로 모긔장과 기타이복가지를 조금만 태여바리고불은진화되엿는데 복률은 원데중상인까닭에 그이튼날(이십삼일)오후 일곱시반에 마츰내 사망하얏다더라(진주)

## 고동춤

든 황주군청남리 (黃州郡城南里)최창린(崔昌麟)으로부터 지난 유력삼월초순경에 백이십원을 대용하야주고 최씨의집사자리를 구하엿스나 가합한데가업슴으로매우 고통춤 이든바 최초에최씨한데 일백이십이라는 금액을차용할때에 만보가합한 혼처가업는경우에는 창기로라도 팔니여가겟다는 약속을하야 이제와서돈입자는 창기라도 가라하고그녀자는 장내를생각하야 창기로는 팔니여가기실타 하면서도내가당신의 집의온날부터 관계를하여왓스니당신과살겟다하야 그와가티일장풍파가이러것이난라더라(황주)

## 非難밧는 自働車部員

### 동행인을희롱

시내종로(鍾路)삼뎡목에잇는선일자동차부(鮮一自働車部)부원들은 이십오일밤열한시경에 그압흐로 통행하든사람들에게 온당치못한말로 희롱을하다가 마츰내 어쟁까지 이러낫섯다는데 일반은 그자동차부원들의 불온당한행동을 심히비난한다하며 더하는말에 의지하면 그자동차부원들은 그전에도 그와가티통행인을 희롱하야 만흔비난을드른일이잇섯다더라

## 受賂한面長

### 면민의비난대심

### 鷄一首를

전남광양군옥룡면장 김교현(全南光陽郡玉龍面長 金敎玹)은그면내 뎡재찬(鄭在贊)이가 재래잠(往來蠶)을사유하야고치를뜻다는말을듯고동면서긔우무현소사정수(同面書記禹武鉉)를다리고 권긔정재찬의집에가서 그고치를압수하야 면 사무소에 두엇는바 정재찬이는 자긔의범법(犯法)한것을 무사케하기 위하야 면장김교현에게 세번이나 탁주(濁酒)를대접하고 또한 닭(雄鷄)한머리를주고 그 압수된 고치를 도로차자간사실이 잇섯는데 이말을들은 일반면민들은 면장에비난이 자자하다더라(광양)

## 風波中의美人

### 창기로가라거니 아니가겟다거니

지난이십이일 황주군성남리(黃州郡城南里) 상동최모(崔某)의 집에서는 이십미만의 젊은녀자에게대하야 창기(娼妓)로 가라거니 그녀자는죽어도 창기로는못가겟다거니하야 일장 풍파가이러낫섯는데 이제 그자세한내용을 듯건대 그녀자는 황해도봉산군 령천면(黃海道鳳山郡靈泉面敬天里)한영호(韓永浩)의맛딸 한창오(韓昌五)(二○)라는녀자로 일즉이부모가 정해준남편과는 작년가을에 헤여진후 다시엇던사람의 소개로 황주군구성면청운리(黃州郡九聖面靑雲里)김모(金某)의소실로돈일백원을밧고 갓든바이 역시마음에 합지못하야 지나간정월에 김모에게먼저바든돈과 제반비용까지 합하야 일백이십원을 도로주기로 하고 헤여질때에 녀자는 한푼돈을변통할수가업슴으로권부터친근한

## 平壤勞組의壯擧

### 피땀으로된오십원을 긔근구제금으로동정

평양종로리(平壤鐘路里)에잇는 평양로동조합(平壤勞働組合)은 발뎐이 날마다새로와가는중 일반사회에서도 동회를대하야 만대한 긔대를갓는바 동회원이백여명은 긔근구제회(饑饉救濟會)에오십륙원오십전을 긔부하얏다는데 이것은 비록사람의동정과는 특별히다른고로 일반은 말하기를 그땀과피를 뫁아모은돈을 긔부한것은참으로 어려운일이라하야 감탄하기를 말지아니한다더라(평양)

## 휘파람

▲광희뎡(光熙町)일뎡목고래현(高來鉉)은자긔의아들이이십륙일밤에그이웃집최덕긔(崔德基)의아들과싸홈한다고최덕긔의아들을몹시란타하야 ▲일시는 긔절까지하엿다고▲아이들싸홈에어른이가로마터며리는것도 찬성하기 어려운일이어니와▲자긔아들과싸혼다고남의아들을 긔절까지하게 때리는것은 너무도 몰상식한일인듯▲그러케하면아들사랑하는것인가

(좌) 무르녹은록음속에나붓기는추천,(모란대기슭에서)

(우) 단오아춤백륙원단의단락한식사(평양덕거리장에서)

(중) 대동강바람에심취한단원일동(부벽루등지고)

本社主催 平壤端午探勝團의畫報


# 注射 실은人에게 歡迎밧난內服藥

●一號二號三號의三種이有함

梅毒 橫痃 下疳症 腫物

## 重症二期三期優効

梅毒療法에는現今六〇六號의注射가第一有効하다고專門家가使用하지만은, 이方法은自然莫大한費用을要할뿐더러極히治療하기어려운患者가만습니다。 如此한患者에게病狀을注重으로生覺하야博士歎津先生과羽田醫學士가協力한結果理想的內服藥세-빈을發見하얏습니다本劑는全身病毒을急速히淨血殺菌케하오며絶對的副作用과몸에害가無하옵고左記諸症에特効가잇습니다

(一期) 梅毒一期는感染后四五日을經過하오면局部에粟粒大의疹症이生起하며이것이生起다하옵는대此時에은完全하게治療하온즉外觀은完治된듯하오나實上病毒은體內를循環하고잇는것이올시다。 그래서二期三期로進行하는것임으로此時에徹底的으로治療치안으면안됨니다。 然故로病者는弊店發賣內服藥세-빈一號를服用하셔서內部로부터完全이治療하시옵소셔。

(二期) 一期時에잘治療치안으시면病毒은全身을循環하야먼저橫痃(가래톳)이生起하며。 橫痃이生起지안으면體內에潛伏하옵는데이것이第一惡性梅毒이올시다次第로病勢가進行하오면腦神經을侵害하야顏色이조치못함은더러頭痛,眩暈,記憶力減退,思考力이無하게되오며또는氣鬱,倦怠,關節痛,癰節風과如히手足關節과筋肉이압프게되오며頸部에멍우리、咽喉症과鼻痿症이生起고骨髓이濁하야지며耳鳴脫髮症이生起게되며全身發疹과局部痃瘡이나오며痔疾等形形色色의症勢가簇出하나니此二期治療에는內服藥세-빈二號를服用하시와全身病毒을撲滅치안으면안이되겟습니다

(三期) 二期時에잘治療치안으면病毒은蔓延하야셔三期가됨니다이病勢는二期痃症을除外한症勢와大略同一하오나二期보다도猛惡하야집니다即頭髮脫毛와局部가腐敗하오며全身에는혹독한毒氣가發生하나이다또腦脊髓를侵害하야所謂惡性腦梅毒이되든後半身不隨와發狂等에危險한狀態가되는일도잇습니다또骨髓와筋肉이腐敗하기도하오며略圖와如히痃瘡으로落鼻、眼을侵害하야盲人이되는等各種慘酷한容體가되나니此三期에는內服藥세-빈三號를服用하시와全身病毒을驅除하시옵소서

遺傳梅毒 梅毒은傳染으로因하야發病함은더러兩親으로부터遺傳하는것이만습니다이것은最初부터前記와如히二期三期에症勢를發出함 如此한病者는세-빈二號를服用함이適當함

無代進呈 歎津羽田兩先生合著梅毒의容態로부터治療法等을詳述한小册子를今回一萬部限하야無代進呈하오니葉書로申請하시요

藥價 一號輕症用金五圓、二號重症用金拾圓、三號頑固用金貳拾圓、試用分金貳圓、다嚴重한木箱에너어서密送함送金은振替或은小爲替代金引換도取扱함

●세-빈은一號二號三號에三種이有하며藥力이次次强함

京城支店及附屬醫院設置

今般各方面의希望에依하야京城支店及附屬醫院을新設케되얏슴니다特히當支店으로直接御注文하시는분에限하야는小包料를不要함

大日本總發賣元

# 柴崎仁壽堂大藥房

京城支店 京城黃金町一丁目(電話本局一六六○ 振替京城一四二五八)

東京支店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電話小石川四七七七 振替東京三二一八五八)

大阪支店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電話長本局五八八七 振替大阪五二五一八) 電停前

附屬醫院 本支店內에附屬醫院을設備하야何某를勿論하고診察과治療를하오니來店하시요

古昔에는 코 업은 사람도잇 섯지만은

至今은! 『세-빈』의恩功으로大安心